

사상 최악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극성'

'목 아프다' 병원마다 호흡기질환자들 북적 약국·마트 마스크 구입 소비자 발길 이어져

사상 최악의 황사에 미세먼지(P-10)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병원을 찾는 호흡기질환자가 늘고 있다.

또 광주지역 약국 등지에는 미세먼지에 대비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3일 광주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1시~3일 오후 2시까지 광주지역 미세먼지 최고농도가 222 μg (마이크로그램)/ m^3 (매우 나쁨)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평균수치는 95 $\mu\text{g}/\text{m}^3$ (나쁨)으로 측정됐다.

특히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로 최고 222 $\mu\text{g}/\text{m}^3$ 까지 올라 오후 8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다음날인 30일 오후 5시 해제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PM-10 농도 150 $\mu\text{g}/\text{m}^3$ 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PM-10 농도 100 $\mu\text{g}/\text{m}^3$ 미만일 경우 해제된다.

광주지방기상청도 이날 '11월 기상특성' 발표를 통해 지난달 전국적으로 황사 관측일수는 평균 2.3일로 두 번째에 해당되며, 최고 기록인 2010년(2.5일)에 근접했다고 밝혔

다. 이처럼 최근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호흡기 질환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병원에는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동구의 한 이비인후과는 진료예약 문의가 쇄도했고, 대기실에도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기 시작했다"면서 "가뜩이나 주말까지 겹친 탓에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까지 방문해 외래진료자들로 넘쳐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공습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학생과 직장인도 늘고

있다.

직장인 최 모씨(31·여)는 "미세먼지로 비염증상이 심해진 데다 목과 눈이 따끔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고 있다"면서 "알 수 없는 이물질감에 생활하기 여간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지역 내 약국도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로 붐볐다.

북구 대학가의 한 약국의 경우 하루 평균 50여개의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평균 20%가량 늘었다고 약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근의 또 다른 약국도 마스크 종류를 불분하고 꾸준히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 관계자는 "사람들이 마스크

를 꾸준히 찾고 있다"면서 "대학가다 보니 일반 마스크를 구매해 대비하려는 학생부터 기능성 제품을 찾는 사람 등 다양한 고객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4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되면서 호흡기 질환 등을 호소하는 환자

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관계자는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생기면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호흡기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게 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수분섭취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11~13	흑산도	11~13
담양	11~13	구례	10~14
화순	12~13	곡성	12~14
영광	10~12	완도	11~14
함평	11~13	강진	11~14
무안	11~12	장흥	11~15
영암	11~13	해남	10~13
진도	12~13	고흥	10~17
신안	11~13	보성	10~13

일출 07:25 일몰 17:20
월출 03:58 월몰 15:36

목포: 만조 12:07 ---:--
간조 04:55 17:27

여수: 만조 07:13 19:13
간조 00:38 13:08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6곳 적발

'환경오염' 저수지 물고기 수십마리 폐죽음 영산강환경청, 7명 검찰 송치...브로커 수배

음식물 폐기물을 톱밥에 섞어 불법으로 처리하고 이 폐기물을 공급했거나 운송에 가담한 업체 등 6곳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와 톱밥으로 퇴비를 생산하도록 허가받은 함평의 A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중남·예산·아산, 전북 전주, 경기 양주의 재활용업체 4곳으로부터 탈수와 선별과정만 거친 음식물류 폐기물 1,600t가량을 브로커와 운반업체를 통해 공급받았다.

A업체가 가축분뇨가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로 퇴비를 만들려면 당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는 무시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중남·전북·경기지역 재활용업체는 재고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톱밥 구매비용과 운송료까지 부담하며 A업체에 넘겼다.

이 업체는 야적장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쌓아두면서 사업장 주변 업체 소유나 대지에 무단 생산한 퇴비를 뿌렸다.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법정 허용기준(50ppm)의 250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만 260ppm) 침출수가 함평군 월야면 농수로와 농업용 저수지로 흘러 들어갔다. 저수지 물고기 수십마리가 죽는 등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당국은 A업체가 불법 생산한 퇴비를 별도로 판매해 수익을 올렸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달아난 브로커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을 넘긴 경기·충남·전북 등 공급업체 4곳은 해당 환경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박석천 영산강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 처리를 뿌리 뽑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대 항공서비스의 날 3일 오후 광주대학교 전산관에서 열린 항공서비스학과 학습제인 항공서비스인의 날 행사에 참가한 대학 뉴스활용 강좌(지도교수 김영진) 수강생들이 올바른 인사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소음·분진 피해 일신·전남방직 이전'

주민 4,238명 청원서 접수...회사 측 "계획 없어"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달라는 주민 청원서가 광주시에 접수됐다. 하지만 공장 측은 현재까지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신·전남

방직 이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요구하는 주민 4,238명의 청원서가 지난 10월 29일 접수됐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 때문에 피해를 입고, 소음 등으로 지역성장의 기반을 빼앗고 있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통 편의성을 가로막는 광천1교~신안교 구간 도로개설, 광주역·기아챔피언스필드·광천터미널·광주시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지선 건립, 인근 상업지구 조성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최근 유관부서가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두 회사 측에 청원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각 사로부터 '이전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황애란 기자

여수 무인텔 화재 투숙객 '질식사' 정확한 사인 규명 위해 정밀 부검

지난 1일 여수 돌산읍 한 무인텔 화재로 숨진 투숙객 2명의 사망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씨(30) 등 30대 남녀 2명을 부검한 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정밀부검을 벌여 약물복용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과수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불이 난 2층 객실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결과 출입문 센서에서 전기줄이 끊긴 흔적이 발견돼 누전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객실 내부 전동과 에어컨 모터 등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감정하기로 했다. 또 무인텔 출입문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숨진 투숙객들의 체코인 시간을 확인하는 등 사고 이전의 행적조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무인텔 측을 상대로 소방시설이나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 옥실 등을 중심으로 탈출한 흔적 등 사고 전후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이 나오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실화나 방화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호남 최대 호텔식부터 카페 컨셉까지 **웨딩 복합명소**

P&J 웨딩홀 · JS 웨딩컨벤션

대규모 연회장에서 각 행사에 걸맞는 최첨단 조명, 음향 시스템으로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기업행사, 대형행사**에서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회연출이 가능합니다. 귀빈을 모시는 마음으로 고객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피앤제이 웨딩홀 062)361-6677~8 상무시민공원 맞은편 태양열주차장 뒷편

JS 웨딩컨벤션 062)385-701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886-2번지(태양열 주차장 뒷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1천300여대 동시주차 가능